
		보 도 자 료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1년 12월 30일(목) 총 3매		 환경특별시 인천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 보건정책팀장 강경희 ☎440-2711 • 담당자 박미란 ☎440-2713		
사진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감염병전문병원 인천유치 위한 전략 모색 - 30일, 인천시 공공의료발전 정책협의체 2차 회의 열어 - -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유치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사업방향 등 집중 논의 - - 회의결과 신속히 검토해 사업에 반영하고, 공공-민간 의료기관 업무협약 체결 할 것 -	
---	--

인천시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청취를 통해 지역현안 과제인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인천 유치를 위해 지난 달 출범한 인천시 공공의료발전 정책협의체 2차 회의를 30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회의는 최근 질병관리청에서 공모 발표한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1개소 선정과 관련해 인천시에 반드시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사업방향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인천시는 높은 인구 밀집도에 비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자원이 부족*한 상황임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관문도시로서 공항과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 위험이 타시도 대비 월등이 높으나 수도권 역차별로 각종 의료 인프라 확충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감염병 확진자가 공항을 통해 내륙 유입 후 해당 지역사회에 전파 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해 국가 전체 확산 방지 및 방역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신종 해외유입 감염병 사전 차단 및 대응이 가능한 인천 지역에 권역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

* 종합병원수(인구100만 명 당) : 부산7.45개, 광주15.25개, 대전6.19개, 인천5.77개

** 2019년말 기준(인천공항) 여객수 : 71,169명, 환승객수 838만명

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이 인천에 유치 될 수 있도록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해 사업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지역 내 공공-민간 의료기관들과 감염병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 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공모에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인천성모병원과 세종병원 두 곳이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유치를 위해 지역사회 및 의료기관, 감염분야 전문가, 지역 국회의원 등이 함께 ONE TEAM이 되어 인천 지역에 유치 될 수 있도록 「감염병전문병원 추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붙임> 사진자료

